



“재협상 불가라니” 커지는 촛불 함성

“靑 수석 사퇴는 소나기피하기 불과” 가족단위 참여 사상최다 15만 행진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이틀째인 6일 전국에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계속됐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광화문-서울시청 사이를 꼭 채우며 15만여명이 몰렸다.

촛불시위 시작 후 사상 최대 규모다. 저녁 무렵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기 재협상 불가 방침’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이명박 퇴진” “재협상”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퇴 소식이 전해졌지만 촛불 행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성환씨(36·회사원)는 “이명박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달라질 것 없다”며 “재협상으로 국적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건강권을 위해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모씨(26·학생)도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촛불집회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씨(36·자영업)는 “청와대 수석 총사퇴와 재협상이 무슨 상관이나. 소나기 오니까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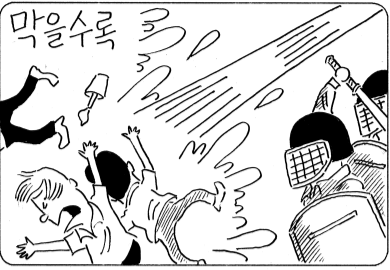
앞서 밤새 거리시위를 벌였던 시민들은 날이 밝자 다시 도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로 집회를 찾은 시민들과 10~20명 단위의 여성생들도 많았다. 시청앞 광장의 텐트와 천막에서 밤을 지낸 시민들은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속속 합류하는 시민들을 보며 금방 활기를 되찾았다. 류승완 감독도 정오쯤 영화 ‘짝패’에 함께 출연한 무술감독 정두홍씨와 나란히 집회현장을 찾았다. 류 감독은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론의 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앞 광장 주변에서는 낮부터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공연이 열렸다. 군함발에 밟혀 폭행당한 이모씨(22)가 소속돼 있는 서울대 마당극 동아리 ‘탈’은 오후 1시쯤 서울광장에서 사회에 진출한 30여명이 참여한 ‘흙머리대이(모교방문행사)’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간이계시판에 ‘100인 선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광우병 캐릭터 모형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전·의경 전역자’ 30여명은 ‘후배들이 사랑한다’라는 현색티를 맞춰 입고 촛불시위에 동참했다.

오후 1시쯤 시청앞 분수대 옆에서 시작된 자유발언 시간에는 무명 가수들이 나와 흥을 돋웠다. 이어 3000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남대문 방향, 서울시청-청와대 방향으로 각각 나눠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오후 4시엔 시민 6000여명이 대학로부터 종로까지 가두시위를 벌인 뒤 촛불문화제에 합류했다.

이틀째 촛불집회는 오후 7시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시작했다. 시민들은 1시간30분 동안 이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 방침을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쏟아낸 뒤 광화문·삼청동길 등 3~4갈래로 나눠서 청와대로 행진해 7일 새벽까지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촛불집회 시작때 10만명 수준이던 시위대는 1시간여 만에 15만여명으로 불어났다.

광주에서는 상인들이 상가 앞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팻말을 내거는 방식으로 촛불집회 응원전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1가 휴대폰 종합상가는 2일부터 입구에 ‘저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란 입간판을 세웠다. 대전·청주·춘천·안동 등 전국 20여곳에서도 촛불집회 열기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광우병 쇠고기 부산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촛불집회를 갖고 87년 6월항쟁 열기를 재연기 위해 10일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촛불집회 비하 발언 논란 정선희 3개 프로그램 하차



‘촛불집회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정선희씨(사진)가 6일 발언의 진원지인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에서 잠정 하차했다. 또 MBC TV ‘불만제로’와 ‘이재용·정선희의 기분좋은 날’에서도 함께 물러났다.

정씨는 이날 ‘정오의 희망곡’에서 “제교만에서 비롯된 지나친 실수였다.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자아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눈물의 사과를 한 뒤 제작진에게 “당분간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방송에서 자전거 도난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무리 광우병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면서 촛불집회를 해도...그러니까 큰일 있으면 흥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가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영남기자



신명나는 거리 전경의 군함발에 폭행을 당한 서울대 이모씨가 활동 중인 동아리 ‘탈’의 회원들이 6일 시청앞에서 미신고기 수입 반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서성일기자

기죽은 경찰

군함발 사건 호된 민심역풍 ‘비접촉·무대응’ 자세 전환

촛불시위를 물리력으로 막아온 경찰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비접촉·무대응’ 원칙을 세운 채 가능한 한 시위대와의 접촉을 피하고 3일부터는 연행작전도 포기한 양상이다.

지난달 24일 이후 연행된 545명도 모두 풀려났다. 지난 1일 물대포를 쏘고 태대러 경찰특공대를 동원했던 ‘강제진압 작전’이 민심의 호된 역풍을 받은 뒤 일어난 변화다.

72시간 릴레이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 시민 8만여명이 촛불을 들고, 경찰도 1만3000여명을 총동원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광화문쪽 세종로와 지하문터널, 동십자각 삼청로 등에서 전경버스로 2~3종의 차벽을 세우고 전·의경은 모두 버스 뒤에 배치했다. 시위대와의 직접 대면을 피한 것이다.

앞서 3일엔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은 검거 작전이 없다. 먼저 차를 뺐 테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민주노총 산하

급속노조 조합원과 승강기하다 빼앗은 깃발도 곧바로 돌려줬다. 이를 전만해도 물대포를 앞세워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판판이다.

경찰의 ‘돌변’은 서울대 여대생을 전경이 군함발로 밟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공개된 1일부터 감지됐다. 시위대가 경찰청을 향의 방문하고 ‘이청수 경찰청장 사퇴’가 주된 시위 구호로 자리잡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2~4일에는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

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자유선진당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도 여 청장의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경찰은 결국 5일 고개를 뚫었다. 군함발 폭행 전경의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물대포·방패의 매뉴얼도 재 정비하겠다고 물러섰다. 경찰의 이같은 기조는 촛불집회가 길어지면서 지친 전경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대신해 시위대를 막은 의경을 경찰이 사법처리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내부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결국 자신의 행동반경을 좁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다슬기자

북파공작원, 이틀만에 철수

촛불시위 시민과 몸싸움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타난 북파공작원 출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수행자회)’가 6일 전사자 위령제를 마치고 이틀 만에 철수했다. 수행자회 회원 철수 과정에서 시민·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수행자회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추모곡을 틀고 위패 7726개에 적힌 북파공작원 전사자 이름을 하나씩 거명했다. 수행자회 측은 당초 3000명의 유족과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수백명(경찰 추산)에 그쳤다. 전날 오후 김정 군부

을 입고 현장에 나와 밤을 지낸 회원 400여명은 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삼삼오오 앉아 광장 주변을 지켰다.

수행자회는 한때 “정부에서 위패 안치소를 마련해 줄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위령제 연장 방침을 내비쳤으나 오후 6시쯤 위패 등을 수습하고 자리를 경른했다. 수행자회 관계자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행사를 끝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모두 애국선열 덕분인데 현충일

하루 정도는 행사장을 양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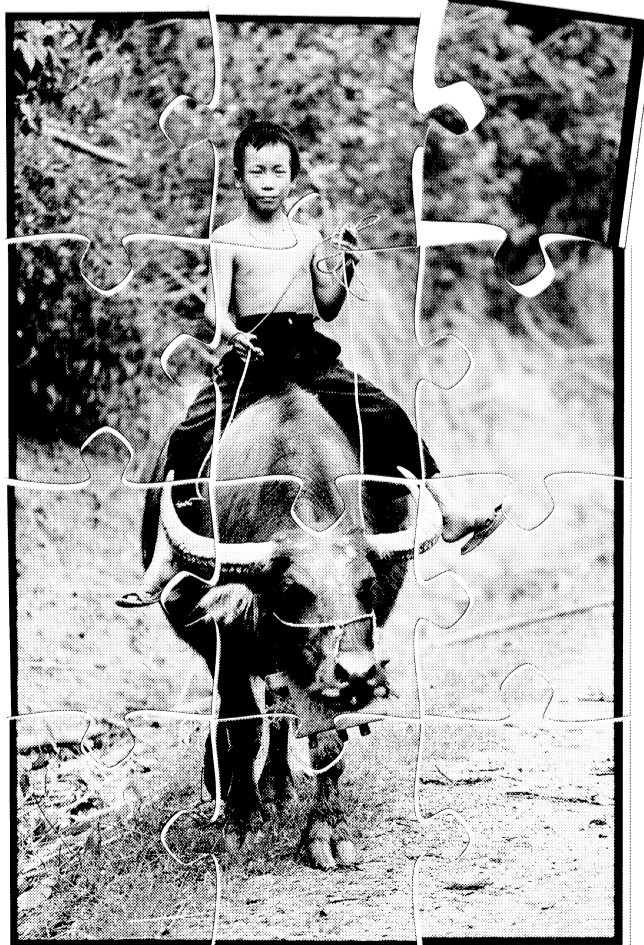
저녁 7시30분쯤 철수 중이던 회원들과 촛불집회 시민들 간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생 이모씨(사회학과·25)와 시민 2~3명이 코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회원 박모씨(39)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시청 앞으로 옮긴 이유가 궁금하다”며 “배후가 있다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민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정직 인생 공부중!

영혼 수업

Spiritual Psychology · 12가지 주요 인생 공부

풍요로운 영성을 위한 영혼의 시크릿



영성심리학에 의하면 이명박님은 정직 인생 공부를 수행 중이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정직 인생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른다.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채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훨씬 더 정직하다고 여긴다. 이런 맹점 때문에 쉽게 정직해지기 어렵다.

이렇게 거짓된 영혼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국정에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국민으로 국민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실력 없는 대표자 탓에 집단은 기대에 빠져 망하거나 자각 있는 국민들 덕에 나라는 새롭게 혁명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분별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런 거짓을 자각하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영혼 수업>을 권유합니다.

12가지 인생 공부

- 커뮤니케이션
- 받아들임
- 명확함
- 적응
- 존재
- 자비
- 창조
- 정직
- 사랑
- 신뢰
- 진실
- 은혜

자기 삶의
수수끼끼를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한 지침서

혼자 힘으로 푸는 비밀의 열쇠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창조
이것을 인생 공부의 마스터라고 한다

위 목록 중 특히 강하게 끌리는 단어가 있다면 자신의 주요 인생 공부일 수 있다

제대로 된 집단 의식 창조를 위한 신나이 산업공동체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구매가능

<영혼수업> / 빛 / 10,000원 / lightworker.kr에서도 볼 수 있음